

돋보기

# 15주년 보광절에 붙여

주님께서 삼위일체 완성자가 되시자 영모님께서는 더 이상 구원할 만한 인간이 없으니 이 마귀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끝내버리자고 하셨으나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인류구원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류 구원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며 피를 토하시고 사경을 헤매는 것도 모자라 세상 사람들로 부터 온갖 비난과 핍박을 받아야 했으며 심지어 따르던 자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2번의 옥고를 치러야 하는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니다.

승리제단이라는 구원의 방주를 마련하여 전 세계 인류를 향하여 자유율법을 선포하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악했으며 소위 구세주를 따르노라 자처하는 자들마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생활을 하여 주님께서 보광의 길을 택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보광하신 지도 올해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2004년 6월 19일 주

님의 보광(普光) 이후의 나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율법(自由律法)을 제대로 지켜왔는지 마음 깊이 참회(懺悔)하는 자성(自省)의 시간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만약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맡기고 자유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여 하루하루 변화되는 승리제단(勝利祭壇) 식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자유율법 못 지키면 참회 시간 갖자

아직도 형제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여 형제의 말을 입에 담고 있다면, 이제는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형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가 나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조언(勸言)을 할 때, "네가 뭐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네가 뭘 그렇게 잘 알길래, 나서느냐?"라며 화를 내고 따지는 행동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나를 위해 조언을 해주니 고맙고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없고 자신의 일은 소중하여

바쁘다는 핑계로 제단 일을 하는 형제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며 간섭(干涉)을 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형제의 일과 제단의 일을 내일처럼 여기고 도와주며 함께 일하면서 만약 일을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형제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하면 더 편하고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형제가 힘들어 하고 어려울 때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도와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사정을 알면서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여기라는 자유율법을 실천하지 않느냐?"고 항변한다면 이는 자유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유율법은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가 지켜 행하여 내가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법인 것입니다. 2019년 6월 19일 15주년 보광절(普光節)을 기해서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을 마음 깊이 반성하며 이제는 자유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수니의  
요가교실

##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 ~이 길은 강자가 가는 길~

이긴자가 되려면 공격해 오는 마귀를 모질게 밟아서 짓어줘야 한다.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 속의 마귀를 죽여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을 이겨야 사마의 신이 되는 마귀를 이긴 이긴자가 되는 것이다. 이긴자가 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 자신을 못 이겨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 승리자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길은 강자가 가는 길이다. 강자가 되려면 끝까지 참는 인내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인내력은 연단 속에서 생긴다. 이긴자가 되어야 영생할 수가 있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무병장수 효과!!!

운동 습관을 통해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최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근육과 뼈를 키워서 몸과 마음을 활기차고 튼튼하게,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로잡아 힘들더라도 꾸준히 하면 신체기능을 유지, 개선할 수 있다.

'모든 동작은 20~30초 유지' (본인의 능력 따라 조절 가능)

동작①: 허벅지 뒷부분(양쪽 교대로 3회)

동작②: 허벅지 바깥 부분(양쪽 교대로 3회)

동작③: 허벅지 안쪽 부분(양쪽 교대로 3회)

동작④: 전신 부분(5회)

참고: 노약자는 벽에 대고 동작을 하면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작 ①



동작 ②



동작 ③



동작 ④



격암유록 新해설 제57회

## 정도령이 삼위일체(삼인동행)가 되어 나오는 이치가 춘(春)자 속에 들어 있느니라

### 隱秘歌(六) 은비가

乾上坤下天地否 건상곤하천지비  
義易之理先天運 희역지리선천운  
義上坎下火水未周易之理後天運  
리상감하(화수미주역지리후천운  
春氣度數發芽期 춘기도수발아기  
九十八土中用年 구십팔토중용년  
夏期度數長成期 하기도수장성기  
五十八土中用事 오십팔토중용사  
天根月窟寒來地 천근월굴한래지  
三十六宮都是春 삼십육궁도시춘  
甲子年月日時定 갑자년월일시정  
日餘不定日數 일여부정일수  
萬物苦待新天運 만물고대신천운  
不老不死人永春 불로불사인영춘

건괘(乾卦=하늘)가 위에 있고 곤괘(坤卦=땅)가 아래에 있는 것이 천지비괘(天地否卦)인데 이는 복희역(伏羲易)의 이치이며 선천운(先天運)을 말하느니라.

리괘(離卦=불)가 위에 있고 감괘(坎卦=물)가 아래에 있는 것이 화수미제(火水未濟)괘인데 주역(周易)의 이치이며 후천운(後天運)을 말하느니라.

춘기(春氣)의 도수(度數)는 만물이

싹이 터서 발아(發芽)하는 시기(희역 지리선천운義易之理先天運)이며, 복희역은 마주보는 괘의 수(數)의 합이 구(九)이니 금(金)이며 열매가 되는 구(九)를 향해 천지가 운행해 나간다는 의미이며, 십팔(十八)은 천지가 구변(九變九復=9+9)해 나간다는 뜻이다. 토(土) 가운데에서 그러한 작용을 해나간다는 말이 된다.

하기(夏期)의 도수(주역지리후천운周易之理後天運)는 성장기(盛長期)로 들어서느니라. 문왕 팔괘에는 오(五)가 중앙에 있고 십팔(十八)은 사람(인)이 구변(九變九復)해 나간다는 뜻이다. 토(土)가운데에서 그러한 작용을 해나간다는 의미이다.

천지인이 똑같이 구변(九變九復)해서 소위 천지개벽이 완성되는 중천(中天)에 가서(정역정卦) 천지인(天地人)이 모두 사람(인) 속에서 완성을 이룬 즉 사람이 하나님(인)이 되게 되는 것이다. 곧 황극(皇極)이요 인존(人尊=하나님)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중천운(中天運)에 들어서면 금운으로 만물을 추수하며 알곡을 거두게 된다.

일월(日月=음양)이 교차하면서 추위(생로병사의 괴로움/전쟁과 질병 등)가 오갔으나(선천과 후천의 시대가 지

나가고) 이제는 온 우주가 모두 따뜻한 봄(중천의 시대=영생불사, 평화와 행복 등)이 되는구나. 천근(天根)은 태양을, 월굴(月窟)은 달을 말하며 다시 음양을 나타낸다. 다시 풀어 설명하면 '이 세상 추운일기가 화창한 춘일(春日)되도다.'가 된다.

새 하늘 새 땅 열리면서 갑자년월일이 새로 정해지고 그 날짜가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정해지리라. 큰 달 작은 달도 없고 윤도수(閏度數)도 없어진다. 만물이 고대(苦待)하던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중천운(中天運)에는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선경으로 사람들이 영원히 청춘을 누리게 되리라.

不耕田而食之 불경전이식지  
不織布而衣之 부직마미의지  
不埋地而葬之 불매지이장지  
不拜神而祭之 불배사이제지  
不食穀而飽之 불식곡이포지  
不流淚而生之 불류루이생지  
不交媾而產之 불교구이산지  
不四時而農之 불사시이농지  
不花發而實之 불화발이실지  
死未生初未運 사망생초말운

雲王真人降島 雲왕진인강도  
逆天者亡 順天者興 역천자망 순천자흥  
三人日而春字定 삼인일이춘자정

밭을 갈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길쌈하지(베를 짜지) 않아도 옷을 입으며, 땅에 묻어서 장례지내는 일도 없으며, 절하며 제사 지내지 않으며, 말을 타지 않아도 다닐 수 있으며, 곡식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사는 일도 없으며, 악을 마시지 않아도 장수하느니라. 남녀가 교합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고, 사시사철을 가리지 않고 농사지으며, 꽃이 피지 않아도 열매를 맺으니, 죽음의 세상이 끝나고 영생의 세계가 새로 시작되는 중천운(中天運)이 왔음이라. 중천운에는 운중왕(雲中王) 즉 감로의 왕이신 진인(정도령)이 동방 나라 땅 끝 땅 몽통이의 자하도에 강림하시니 역천자(逆天者)는 망할 것이요 순천자(順天者)는 흥하리니, 삼인이 동행하여 마지막 한 사람이 되어 나오는 이치가 춘(春)자 속에 들어 있느니라.\*

박영희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 나를 이기는 길

##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선생님: 부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

부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선생님: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부처님처럼 여긴다. 또한 상주불변하여 죽지 않으므로 영생의 확신이 가득 차 있으며, 항상 기쁘고 즐거움 생각뿐이며, 흰 눈보다 더 정결하며, 한도 끝도 없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의 마음이 대자대비하다는 것은 들어봤지만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며, 영생의 확신이 가득 차 있고, 엄청난 인내심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내용이였다. 불심(佛心)이란 글자는 봤어도 불심이 어떤 것인지 그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했는데 선생님은 너무 쉽게 말씀을 하셨다. 중생은 중생의 마음을 품으므로 중생일 수밖에 없고, 부처님은 부처님의 마음을 품으므로 부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부처가 되려면 부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는 말씀은 참으로 쉬우면서도 간결 명료했다. 부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야 부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부처의 마음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라는 설명은 그럴 듯했다. 석가세존도 일체동체(一切同體)를 말씀하셨으니 그런 뜻으로 이해하

였지만 납득하기는 어려웠다.

남인데 어떻게 내 몸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선생님: 남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한 몸이라뇨?

선생님: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육신은 부모님에게서 왔지만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영혼은 다른 곳에서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계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내가 잉태되는 순간 영계에 있던 영혼이 어머니의 자궁에 있는 내 속으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하는 문제는 철학적 근본 문제로 오늘날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논해왔지만 그들은 아직도 명확한 답을 모르고 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모님은 조부모님으로부터 왔다. 조부모님은 증조부모님으로부터 왔고, 증조부모님은 고조부모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계속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인류의 첫 조상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며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율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http://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부제단 032-343-9981~2

###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                        |                       |                      |                       |                            |
|------------------------|-----------------------|----------------------|-----------------------|----------------------------|
| 역곡제단 : (032)343-9981-2 | 김해제단 : (055)327-2072  | 사천제단 : (055)855-4270 | 청주제단 : (010)5484-0447 | 下關祭壇 : (0832)32-1988       |
| 수원제단 : (031)236-8465   | 대구제단 : (010)6530-7909 | 포항제단 : (054)291-6867 | 충주제단 : 010-9980-5805  | 大阪祭壇 : (06)6451-3914       |
| 안성제단 : (031) 673-4635  | 마산제단 : (055)241-1161  | 순천제단 : (061)744-8007 | 강릉제단 : 033-535-8254   | London: (0208)894-1075     |
| 평택제단 : 010-7516-1591   | 진주제단 : (055)745-9228  | 정읍제단 : (063)533-7125 | 橫濱祭壇 : (045)489-9343  | Sydney : (006)0415-727-001 |
| 부산제단 : (051)863-6307   | 진해제단 : (055)544-7464  | 군산제단 : (063)461-3491 | 神戸祭壇 : (078)862-9522  |                            |
| 영도제단 : (010)6692-7582  | 영천제단 : (054)333-7121  | 대전제단 : (042)522-1560 |                       |                            |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